

2023년 상반기

삼척시 적극행정 우수사례



뚜렷한 지적재조사 조정금 제시를 위한 개선방안 권의



민원과



현황 / 문제점



• Q. 내가 낼 돈이 얼마인가요? A. 모릅니다.

- 조정금이 산정시점(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20조3항)

* 지적재조사에 따른 경계확정으로 면적이 증감된 경우, 지급 또는 징수할 조정금의 산정 시기는 경계확정 시점으로 명시.

* 현행 법령으로 인해 토지소유자들은 경계확정이 되기 전에 본인이 수량/납부 해야할 조정금을 알 수 없으며 조정금 내역을 통지받은 후에는 이미 경계가 확정되었기에 되돌릴 수 없는 상황, 이의신청을 하더라도 조정금의 증가폭 또는 감소폭은 크지 않음.

‘우리는 한번에 낼 여력이 안되는데..’

- 조정금의 분할납부(지적재조사법 제21조5항, 같은법 시행령 제13조)

* 상기 현행 법령은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4회 이내에서 분할 납부 할 수 있음을 명시.

농어촌 지역의 지적불부합지 토지소유자의 대부분은 고령층 또는 소득이 일정하지 않거나 저소득층인 분이 다수인 실정이라 체납의 우려가 있음.



개선방안

- 토지소유자가 확정예정조서를 통보 받을 때 면적 증감에 따른 조정금 납부(예정)액 또는 수량(예정)액을 함께 안내할 수 있도록 관련 법규 개정 - **조정금의 2회 산정(1차산정, 최종산정)**
- 면적 증가 토지소유자의 조정금 납부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관련 법규 개정을 통한 분할 납부 기준금액 변경 및 납부횟수 조정
 - 조정금 분할납부 대상 기준금액의 하향조정(천만원 → 오백만원)과 분납가능횟수의 증가(4회 → 6회)



개선효과

• Q. 내가 낼 돈이 얼마인가요? A. @번지 1차 조정금액은 X원입니다.

- **조정금의 2회 산정(1차산정, 최종산정)**

* 지적재조사 조정금의 감정평가에 소요되는 예산을 증액하여 사업지구지정고시 시점의 감정평가 (1차산정)와 경계확정시점의 감정평가 두 번의 감정평가를 시행합니다.

* 1차산정에 따른 저정(예정)금은 개별행위나 주변요인 등에 의하여 추후 최정산정 조정금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을 안내합니다.

* 토지소유자는 통보받은 확정예정조서에 기재된 1차 조정(예정)금액을 참고하여 지적재조사사업 완료 전 조정금액을 확보하거나 현황 또는 경계 설정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. 납부해야 할 조정금을 6번까지 나누어 내실 수 있습니다.

- **조정금 분할납부 대상 기준금액의 하향조정(천만원 → 오백만원)과 분납가능횟수의 증가(4회 → 6회)**

* 납부할 조정금의 분납 기준 금액과 분납 가능 횟수의 변경으로 납부 부담을 줄여 토지소유자가 토지를 현실경계로 조정하는 것에 대한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.

IoT 기반 도로 조명설비 원격 점검 체계 구축 삼척의 밤을 지켜라



도시과



현황 / 문제점 / 필요성

- (사고우려) 현장 순찰을 통한 고장 유무 확인이 어렵고, 신고 후 복구 조치까지 평균 2일 가량 소요되어 2차 사고 발생우려
 - 가로 보안등 현황 : 11,798개소
- (예산낭비) 전수조사 및 현장 순찰조 운영 등 행정력 및 예산 낭비
- (고장접수) 현장 순찰 외 민원신고 의존율이 극도로 높음



조치사항

- (기술도입) 최신 IoT 기술 및 무선 데이터 통신을 활용하여 무선 원격제어 시스템 구축
- (고장감지) 실시간 장애감지를 통해 실시간 파악 및 신속한 대처 실시



결과 / 효과

- (관리운영) 실시간 모니터링 구축 및 복구 조치 실시
- (주민체감도) 민원신고 전 고장감지를 통해 민원신고 최소화
 - (설치전) 평균 70여건 → (설치후) 평균 30여건 : 43% 감소
 - (농번기) 가로등 불빛 조도 조절을 통한 농작물 피해 민원신고 감소
- (예산절감) 현장 순찰반 감축 운영, 통신비, 전기료 등 절감



관련규정

- 「전기안전관리법*」 개정에 따라 원격점검 인프라 구축 및 전기 안전관리의 데이터 기반 디지털 전환 추진(제12조)

* (주요내용) ①(원격점검) 원격점검시 현행 정기점검 대체 또는 시기조정
②(관제센터) 전기안전 측정 데이터의 전산처리를 위한 '관제센터' 설치·운영

임금님께 진상하던 고포미역을 삼척시 최고 특산품으로

(미역 채취 금지구역에서 미역 채취 가능 구역으로)



해양수산물



현황 / 문제점 / 필요성

- **(항계구역)** 한국가스공사 등 국책사업 추진으로 호산항 항계구역 설정
- 강원도 지방관리 무역항 어로금지 구역지정 고시(강원도 고시 제2016-254호)
* 항계구역 : 항만의 경계 구역
- **(소득상실)** 고포미역 채취 불가로 주민 주요 소득 상실로 경제적 어려움
- 항계구역 설정 이전 생산량 및 수익 : 17천장, 195백만원



조치사항

- **(규제건의)** 호산항 항계구역 내 일시 조업 및 정화 활동 허가 요청 : '22. 10. 18.
- **(관련기관)** 한국가스공사, 한국남부발전, 군부대 의견 수렴
- 한국가스공사(승인), 한국남부발전, 군부대(도 승인에 따라 허가)
- **(조업허가)** 대상 지역에 한하여 조업 및 정화 활동 허가 : '23. 4. 6.
- 대상지역 : 4개 마을(노곡1리, 호산4리, 월천2리, 월천3리)



결과 / 효과

- **(주민체감도)** 지역주민에 대한 직접적인 경제적 소득향상 효과
- **(브랜드화)** 고포 미역을 통해 삼척시 수산물 브랜드화
- **(파급효과)** 미역 가공사업 추진 등 어촌마을 내 인구 유입 효과



관련규정

- 항만법 제28조(금지행위 등)
-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(어로의 제한)
- 강원도 지방관리 무역항 어로금지 구역지정 고시(강원도 고시 제2016-254호)

대학생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
자활사업 참여조건 부과 유해와 관련하여

현행 부과유해 인정학교 범위 확대



정라동행정복지센터



현황 / 문제점 / 필요성

- 현황** • 만 18세 이상 64세 이하의 기초생활보장 조건부수급자는 중증 장애인, 국민연금공단에서 근로능력평가 심사를 받아 근로능력이 없다고 판정받는 등의 예외적인 경우들을 제외하고는, 원칙적으로 기초생계급여를 지원받게 되면 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에 따라 자활사업에 참여해야 하는 조건을 부과받음.
- 문제점** • 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 시행령 제8조(조건부수급자) 제2항에서는 「고등교육법」 제2조(학교의 종류) 제5호에 해당하는 학교에 재학중인 경우는 제외하고, 이외 각 호의 학교에 재학 중인 기초생활 수급자(조건부수급자)에 대해서 자활사업 참여 조건부과를 유예하여 준다고 규정하고 있다.
- 「고등교육법」 제2조 제5항에 해당하는 “방송대학·통신대학·방송통신대학 및 사이버 대학(이하 ‘원격대학’으로 호칭)을 차별적으로 조건부와 유예대상 인정학교에서 배제함으로써, 원격대학에 재학중인 대학생 기초생활수급자의 소외감 및 위화감 발생.
- 나아가서는 원격대학 재학생에 대한 자활사업 참여조건 부과로 인해 원격대학에 재학 중인 수급자가 자활사업에 강제적으로 참여하게 됨으로써 학업에 온전히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이 보장되지 않는 등 학습권이 침해되는 상황 유발.



개선방안

- 조건부수급자에 대한 조건부와 유예인정이 적용되는 대상학교 종류에 “원격대학”도 포함될 수 있도록, 현행 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 시행령을 일부 개정하여 조건 부과유예 인정학교 범위를 확대.



개선효과

- 대한민국 기초생활수급자 중 약 310,000명에 해당하는 조건부수급자 중 “원격대학”에 재학 중인 대학생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현행 조건부와 유예 미적용 상황 해소 및 차별적인 요소가 철폐.
- “원격대학”에 재학하는 조건부수급자에 대한 조건부와 유예를 통해 학습에 온전히 집중할 수 있을 여건을 마련해 줌으로써, 대상자가 학사관리 및 취업준비에 좀 더 용이한 상황이 되어 탈수급(수업을 통한 기초생활보장 중지)할 가능성이 증대.



행정안전부 지역사랑상품권 '연 매출액 30억이상'

가맹점 등록 제한 지침 개선 건의



현황

- 지난 2월 행정안전부는 「2023년도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사업 종합지침」에 따라 '연 매출액 30억이상' 인 사업장에 대하여 지역사랑상품권 등록을 제한하는 개편안 발표
 - (원칙) 연 매출 30억 이하인 경우에만 가맹점 등록 허용
 - (적용시기) '23. 5월부터 시행
- 삼척시는 5월 시행에 앞서 해당 사업장에 사전 안내문 송부
 - 총 가맹점 3,362개소 중 93개소로서 삼척사랑상품권 전체 매출의 35.8%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상황



문제점

- 가맹점의 대부분은 일상생활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지역농수축협마트 및 종합 소매업, 주유소, 의료기관 등으로 시민들이 주로 이용하는 생활 밀착형 사업장이 대부분이다.
- 농촌지역은 상권이 한정적이고, 이동이 자유롭지 못한 고령층이 많아 주로 생활권 내 지역 마트 등에서 상품권을 사용하고 있다.
- 소비자가 원하는 주된 사용처가 줄어 지역 내 상품권 사용이 줄고, 대형쇼핑몰이 있는 인근 도시 지역 소비를 조장하여 지역 경제가 위축될 우려도 매우 크다.



개선방안

- 등록기준 연매출액 30억 이하 단, 인구소멸지역등 상권이 한정적이라고 인정되는 지역에 한하여 연 매출액 제한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.



함께해요!
지역경제 활성화!